

IMF한파로 '집나온 사람들' (Homeless)이 늘고 있다. 지하철이나 역 대합실에서 부랑자 노숙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충분한 노동력을 지닌 30~40대의 '하이 트랄라 홈리스족'이 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역 지하철생활을 하고 있는 박모씨는 전자대리점을 경영하는 단란한 가정이었으나 사업부도로 빚쟁이에게 쫓겨다니다 떠돌이 신세가 됐다. 대학원을 졸업한 조모씨도 전자통신계통의 공장을 운영하다 부도내고 노숙자로 배회하고 있다. 부모의 가솔과 가정의 붕괴로 버려지는 아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불황과 함께 몰아닥친 개인 및 가정붕괴의 참혹함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회사 그만둔지 두달되도록 가족에게 애기를 하지 못했어요." "졸지에 직장 잃은 게 분해서 술만 마셔댔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정신병원에 입원하네요." "회사에서도

홈리스란 홈리스(homeless)는 영어의 의미 그대로 '집없는 사람'을 뜻한다. 역사적으로 홈리스의 원조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디오게네스가 자발적인 홈리스였다면 최근의 홈리스는 자의든 타의든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낙오된 경우가 대부분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들은 범죄자처럼 조직적이지 않고 뿔뿔이 흩어진 개인으로 소외된 채 제 한몫 추스르기도 힘든 하루하루를 거리에서 살아오고 있다.

부도...실직...집떠나 노숙하는 가장들

홈리스족 급증 '사회문제로'

가족의 변함없는 사랑 '묘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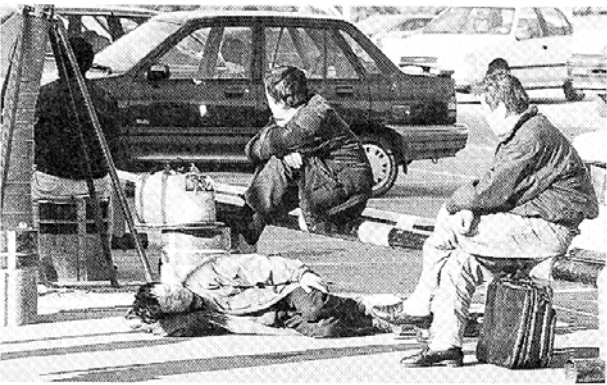
가정에서도 버림받았습니다.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어요."

요즘 '아버지의 전화' (대표 정승)에는 이런 전화가 많이 걸려온다. 선량한 아버지들이 어느덧 예비 홈리스족의 대열에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상담원들은 "가족에게 몇달째 퇴직 사실을 숨기고 거리를 떠도는 이들이 가장 많다"고 한다.

주간신문 '사람과 사회'의 실직자 (대상 344명) 여론조사에 따르면 실직자중 64.5%만이 실직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렸다고 응답, 상당수 실직자가 혼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홈리스족의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정부차원의 대책이 요구된다. 이와관련 서울시립경생원 등은 얼마전부터 홈리스족을 전원 수용하기로 결정했지만 시설이 부족해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최근

화 충동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예비 홈리스족의 방향을 여실히 보여주는 통계다. 노조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화이트칼라를 중심으로 정리해고가 본격화되는 올해 안에 100~120만명의 실직자가 새로 생겨나고 있다. 실직자중 64.5%만이 실직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렸다고 응답, 상당수 실직자가 혼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홈리스족의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정부차원의 대책이 요구된다. 이와관련 서울시립경생원 등은 얼마전부터 홈리스족을 전원 수용하기로 결정했지만 시설이 부족해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최근



◇경제한파로 남의 일로만 여기던 홈리스문제가 우리사회의 고민거리로 부각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역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홈리스족들. <사진=고영배 기자>

실업자 109만5천명에게 4조485억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올해 실업대책을 확정했지만 역부족임이 분명하다.

아직 우리에게 낯설게 여겨지는 홈리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주요 사회문제로 인식된 지 오래다. 미국의 홈리스는 2백만명, 유럽은 수백만명에 달한다. 일본은 90년대 초 거품경제의 붕괴로 고역력 실업자들이 급격히 증가, 지하도와 공원마다 (때로는 자유분방한 삶을 위해) 천막생활을 하고 있다. 대체로 정부보다는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재경 기자

불교의 눈 "꼭식창고 열어 이웃 도와라"

몇안되는 교계의 부랑인복지시설의 하나인 강릉시립복지원 강선옥 생활지도과장은 "올해 초부터 일반 부랑인의 10%에 달하는 말쑥한 차림의 실직자들이 사·나눔씩 머물다 가곤 한다"며 안타까워 했다. 해남회향원의 임숙재원장은 "전보다 부랑인들은 많이 늘었으나 운영비가 폭증해 빛을 지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계·정부의 지원을 호소했다. "세상에 재앙이 있고 일

기가 고르지 못해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굶주린 나머지 고향에 안주하지 못하고 등을 돌려 도망치고자 할 때는 마땅히 비심(悲心)을 일으켜 꼭식 창고를 열어 가난한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도와주도록 세 교 목숨을 건져 본토(本土)에 안정해 살도록 해야 한다." (아난사사경) 실직자들에게 몸과 마음을 힐 수 있는 안식처로 사찰이 더욱 개방되어야 했다.

"민족문화 세계화에 노력"

김대중 15대 대통령 취임

김대중 대통령은 2월25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에서 임기 5년의 제15대 대통령 취임식을 갖고 집무를 시작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국난극복과 재도약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제목의 취임사에서 새 정부를 '국민의 정부'로 명명하고 정치개혁, 개혁을 통한 경제난 극복, 인간존중의 정신형성, 교육개혁, 냉정적 남북관계 청산 등을 다짐했다.

김 대통령은 문화정책과 관련 "관광산업, 회의체산업, 영상산업, 문화적 특산물 등 문화산업은 무한한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21세기의 기간산업이다"며 "민족문화의 세계화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통령은 "한국의 교류방안에 대해 '문화와 학술의 교류, 경제교류의 확대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또 "환경을 보존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며 "청년을 위한 교육과 문화, 복지 향상에 애쓰는 지원 대책을 세우겠다"고 천명했다.

박봉 쪼개 불우이웃 돕는다

롯데호텔 방재담당 직원 임영길(53)씨가 14년간 10여명의 소년소녀가장을 돌본 것으로 알려져 화제. 지금도 임씨는 3명의 소년소녀가장들을 위해 한 달에 15만원씩을 내놓는 한편 20평 짜리 자택에서 주말마다 조출한 가족모임을 갖고 있다.

서울 5만 공무원 헌혈운동

서울시는 2월24일 IMF여파로 인해 각 병원에서 혈액이 부족해 수술등 치료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시 산하 5만여 공무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헌혈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26일부터 3월5일까지를 추진기간으로 설정, 전 직원이 각 실·국별로 헌혈하도록 할 방침.

대구지검등 소년소녀가장 돕기

대구지검과 선도보호위원 대구·경북협의회(회장 김상구)가 벌이는 사랑나눔운동이 불우한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있다. 이들은 2월19일 그간 모인 기금 1천만원을 한국복지재단 대구지부에 전달, 1백71명의 소년·소녀가장들에게 매월 후원금을 지급토록 했다. 사랑나눔운동은 서울에도 알려져 김태정 집행총장이 최근 1백만원의 격려금을 보내왔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현재 3백3명의 회원이 참여, 5천5백만원의 기금을 더 모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실련-환경연합 10만명 고용창출 '산림가꾸기'

경실련은 환경운동연합과 공동으로 실업자 10만여명을 흡수, 국유림을 포함한 30만ha의 숲에서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 보육, 버섯채취등의 산림작업을 펼치게 되는 대규모 고용창출 프로그램을

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등은 이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일당 4만1천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3월12일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본부'를 발족키로 했다. (02)741-7961

살신성인 대학생에 명예학사

국민대는 2월23일 지난해 8월 강원도 오대산에서 돌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 익사한 이용재씨(李用在·26·경제학 4)에게 명예 학사학위를 수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학교측은 숨진 이군이 의협심과 함께 어려운 가정형편속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보이는 등 귀감이 돼 이번 졸업식에서 명예학위를 수여하기로 했다.

상습 도박사범 52명 구속

수도권일대에서 상습적으로 불법사설경마를 하거나 거액의 화투판을 벌인 도박사범 86명이 경찰에 적발돼 이 가운데 52명이 구속됐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대석)는 24일 불법사설경마 조직 2개파 17명을 적발, 한승봉(45)씨 등 8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빛나간 중학생 '검도사'

강원도 강릉경찰서는 2월24일 통신망을 통해 자신이 직접 제작한 컴퓨터 바이러스를 침투시켜 가입자들의 프로그램을 파괴시킨 모 중학교 2년 최모(13)군을 컴퓨터등 장애업무 방해혐의로 불구속 입건. 최군은 지난해 6월부터 자신의 집에서 유포바이러스, 미니바이러스 등 12가지 컴퓨터 바이러스를 제작해 7월부터 무료통신망인 스마트라인, 키텔, 에듀넷 등에 접속, 통신 가입자들의 프로그램과 파일을 파괴시킨 혐의다.

연금공단 비리 57명 징계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감사와 감사와 자체감사 결과에 따른 공금횡령 등 2억원의 변태지출 비리와 관련, 부장급 1명을 파면하는 등 모두 57명을 징계했다. 이중 공단 본부 임무 부장은 95~96년 총남서부지부장 재직시 일용직 인건비 예산5백만원을 불법 전용해 야식대 등으로 쓰고 4백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파면됐다. 징계 대상자중 1급 등 상위직은 1~3개월 정직 등 징계 했다.

초·중·고·대학 대부분이 입학식을 거행하고 새로운 학기를 시작했다. 새로운 학문의 단계로 접어들면서 학생들 모두는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고 성취를 위한 발원과 굳은 다짐을 한다. 시작의 다짐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다짐만으로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란 쉽지 않다. 때로는 나태해지기도 하고 목표가 흐려지기도 한다. 시작의 다짐은 왜 중요하며, 어떤 마음가짐으로 출발의 의미를 새겨야 하는지 경건 말씀을 통해 들어본다. <편집자 주>

시작의 다짐

과녁 맞추려면 노력하라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과거에 매달리지 말라. 미래를 원하지도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라. 꿈은 여기 현재의 일에서 가져야 할 것이니 이루고자 하는 뜻에 확고부동하여 흔들림없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야 하라. 오로지 오늘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 탐험해 노력하라."

(종이합경)

은갖 존재는 한량이 없으니, 학문을 쌓아야 비로소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빛방울이 떨어져 사인스레 흐르는 물이 되는 것은 짐짓 모였기 때문이니, 무시회회(無始輪廻)의 바다에서 보리심을 일으켜 금강도랑에 앉아 불과(佛果)를 성취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제법집요경>

"선남자아, 보리심을 일으키고 나서 해야 할 다섯 가지 일이 있으

활을 쏘아 과녁을 잘 맞는 사람은 그만큼 노력한 것이니 누구라도 잊지 않고 노력하면 과녁을 잘 맞출 수 있다. 도를 빨리 얻지 못한다고 한탄하거나 물러서지 말고 부지런히 노력하면 반드시 도를 얻을 수 있느니라. <불비니항경>

모든 중생을 저마다 이익을 위해 각각 마음속에 바라는 것은 한 가지이나 탐욕을 노력하는 자만이 그것을 얻을 수 있다. 사업을 이루는 참아 이기는 것이 제일이니 뜻을 이루고자 하면 먼저 인욕함을 배워야 한다. <법역잡아함경>

모든 착한 말들을 기억하여 그것을 외우고 암송하라. 가섭과 아난은 8만법의 경을 모두 갖추어 지냈었고, 서역과 중국의 고승대덕들은 출가하여 어려서부터 익히기 시작하여 배운 모든 것을 외워 지냈다. <치문경후>

담도 보리심을 일으켜서 보리행을 구하는 것이다. <법보리심론>

모든 착한 말들을 기억하여 그것을 외우고 암송하라. 가섭과 아난은 8만법의 경을 모두 갖추어 지냈었고, 서역과 중국의 고승대덕들은 출가하여 어려서부터 익히기 시작하여 배운 모든 것을 외워 지냈다. <치문경후>

세상품

"전자식 눈맞사지기"

컴퓨터, 스트레스, 과중한 업무와 학습 등으로 인해 혹사 당하는 눈의 피로를 시원하게 풀어주는 전자식 눈맞사지기 '아이 119'.



1.5V 전지지를 이용 1분어약 2500회의 진동 맞사지기 차가운 냉 찜질을 동시에 해주는 이 제품은 눈가의 경혈과 경락을 자극해 피로회복에 도움이 된다. 시력저하 방지와 눈가의 잔주름 예방효과도 있다. (주)한길산업, 가격은 4만8천원. (02)636-7138

나는 지금 어느 헛됨속에 머물고 있는가.

내가 하는 수행은 과연 올바른 길일까.

중생과 세계의 참모습을 밝히는

능엄경 대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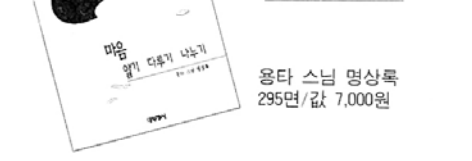
유마선원장 이 제열 법사가 강의합니다.

- 일시 98년 2월 23일부터 매주 월요일 11시
- 장소 유마선원 법당
- 문의 (0344)967-9122

※ 3호선 화정전철역 학차 덕양구청 입구

7년 동안 4,000여 명이 지도에는 실재 경형을 바탕으로 예뻐나 살아있는 명상 언어

IMF시대에 얼어붙은 가슴을 촉촉히 녹여주는 따스한 지혜의 말씀



올타 스님 명상록 295원/값 7,000원

마음 알기 다루기 나누기

왜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아하' 하는 감탄사를 쏟아내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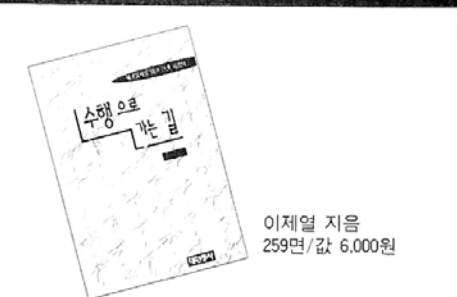
여러 해 동안 신방에서 수도한 수와 스님, 세속 잡사에 찌들리던 회사원이며 선생님 및 가정 주부, 기업의 대표 자신만 아는 자존심 강한 여대생, 대학 교수 등 훌륭한 사람들이 '모 수련회'만 다니오면 '아하!' 이것이 인생살이의 진정한 멋이구나. 그래 이게 바로 행복이며 해탈이야 하고 무릎을 치고 만다. 신경, LG, 서광 등의 대그룹에서는 사원 심성 개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여기에 참여시키고 있을 정도이다. 각 대학 심리학과 교수 및 학생들의 호응도 광복할 만하다. 왜 그럴까? 마음을 알고 다루고 나누는 일들 하나하나가 구체적으로 감동을 주며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는 이 모든 놀라운 사건의 가슴 뭉클하게 배아쳐지고 있다.

대원정사

대원정사 출판부 (02)754-1614/도서흥판(대원사)(02)757-6717

불교의 다양한 수행법과 수행체계를 명쾌하게 알려주는 수행지침서!

수행으로 가는 길



이제열 지음 259원/값 6,000원

한국불교가 불교 본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길은 오직 수행뿐이라는 일념 하나로 수행과 포교에 매진해 온 필자가 불교 수행의 올바른 길잡이를 제시해 준다.

- 무엇을 믿고 어떻게 수행해야 하나?
- 기도의 의미와 올바른 마음 자세
- 경건 없는 법
- 열반의 자세
- 여러 가지 참선법
- 마음 다스리는 법
- 보살도의 실천

생활 속의 수행법 등이 알기쉽게 담겨져 있을 뿐더러 감동 또한 풍부하다. -업·윤·공(空) 등 불교의 기본 개념도 잘 설명되어 있다.